동체대비의 보살도를 시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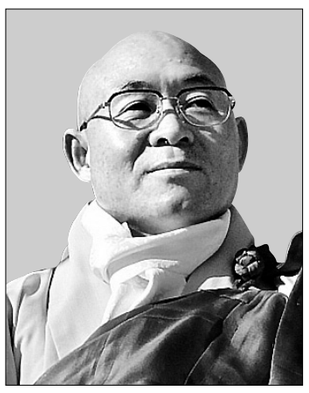
자비 실천 행하길 기원

조동종 종정 심월스님

좌선바람속에 묵조선풍 일으키니
달밤에 은근히 부처님의 마음을 만나는구나!
조동종은 반드시 화두를 필요하지 않지만
고요함을 멸해 불이 스스로 서늘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지 2560년이 흘러가 버렸지만 아직도 그 법은 수승하기에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네! 가슴속 하염없는 빗줄기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환생을 반복해도 부처님의 경지를 오르지 못하는 나의 참회의 눈물이라!
사람들이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을 살펴보니 여래의 지혜 덕상이 갖추어 있으며, 모든 중생의 허망한 생각은 원만하게 깨달은 묘한 마음에서 일어난다고 하시니 그러므로 이 마음을 떠나 부처를 이룰 수 없다고 하셨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맞이하여 모든 종교와 이념을 떠나 자비의 실천을 행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계율을 청정히 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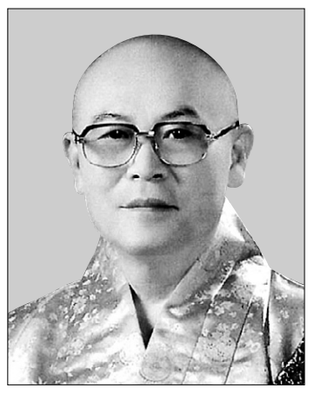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스님



生死의 苦에서 해탈하라
대자비심으로 수행하라
너희들은 내가 열반에 들어도
戒律을 지키면 내가 있고
戒律을 지키지 않으면
태산같은 사원을 지어도 나의 법은 아님이라
세상은 무상하고 위태롭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오로지 수행 정진하라
나의 수행 법은 戒·定·慧 三學이다.
여기서 벗어난 불교수행의 길은 없다.
그러므로 계율을 청정히 하라
언제나 내가 있다.
불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계를 지키는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수행하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난 것은 불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 오신날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케 하겠다는 부처님의 선언이야 말로 부처님 오신 참뜻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들어 하고 고통받는 현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불자들의 서원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열심히 정진합시다.

무상살귀 와있는데 세월만 보내네

무량종 종정 혜안스님



“박쥐의 출세는 컴컴한 굴속을 차지 함이요
봉황은 오동 아니면 깃들지 아니하고
대호는 굶주려도 죽은 고기를 취하지 않느니라.
북천에 번개치니 남천에 천둥이라
청산에 소쪽새 울음은 날새는줄 모르네.
오호라 칠보산에 돌사자는 보이지 않고
온갖 잡새만 지저귀도다.
부처님 말씀에 영원한 것이 없거늘
무상살귀는 문전에 와 있는데
어찌하여 천년 근심에 세월만 보내는가.
부처님 이 한등의 공양을 저버리지 마옵소서.“
부처님 오신날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두루 비추기를 서원하며 등공양을 올립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야 말로 우리 인생의 참된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며 더욱 열심히 정진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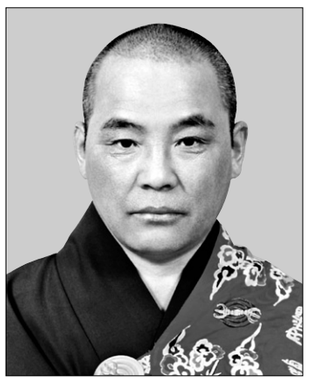
우리 모두는 부처님 생명

근본불교조계종 종정 의륜스님

오늘은 모든 생명이 부처님으로 탄생한 날입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중생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중생의 마음은 모든 진리의 원천입니다.
만물은 일심의 근원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부처님 생명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일대사 인연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생명이 불성을 가진 부처 생명임을 선언하고 중생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이 때문에 바로 우리들의 생일입니다. 모든 만물이 부처님 생명이듯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하나입니다.
마음밖에 진리가 없고 부처도 따로 없습니다. 한생각 어둡게 가지면 이 세상이 악의 구렁텅이에 떨어질 것이고, 한 마음 밝게 가지면 진흙연못에서 연꽃이 피듯 정토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비우고 비워 무심으로 돌아가라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모든 중생의 마음에 부처님 성품 빛나고 있듯
행복도 고통 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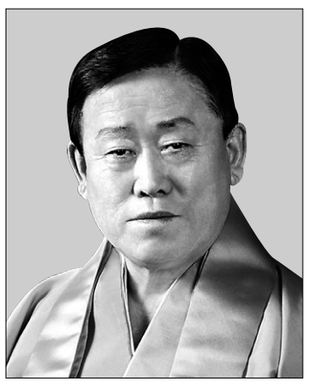
역경 속에서 희망의 싹이 자라고 있으니
진흙 속에 연꽃이 피어나는 도리가 여기에 있도다.

마주 하면 떠오르는 해가, 등을 돌리니 지는구나.

부처님오신날을 지극히 맞이해야 하는 소이가 여기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살아보면 짧기만 한 인생, 허망한 범부의 삶이라.
팔만 사천 법문도 모자라 채우고 또 채우려 애를 쓰는구나.
부처님보다 가진 게 없어 범부가 아니라 더 가져서 중생인 것을 잊지 말라.
오늘은 비우고 비워 무심(無心)으로 아기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다.

불일을 밝혀 현세를 정화합시다

진각종 총인 성초정사



무우수 꽃비 흩날리는 사월 초파일 광명을 놓아 세상의 뭇 아픔을 쉬게 하려고 부처님이 귀하신 몸을 사바에 보여주시니 군생이 봉축하고 새날을 열어가도록 함께 한마음으로 신심을 다독여 서원합시다.
부처님은 시공에 걸림이 없이 거래금 자재하여 중생이 있는 곳마다 자비의 손길을 내리시나 삼독의 미혹은 사심을 치성하게 하고 아상의 덫이 공도를 어지럽게 하여도 청량한 감로법음만은 귀담아 들읍시다.
미증유의 첨단기술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물질문명의 혜택이 운해처럼 넘쳐나도 세상에는 여전히 귀천의 차별이 도를 더해가고 세사는 피아의 시비에 빠져드니 자타일여의 불심을 살려 구제합시다. 그리고 진각성존의 원력에 귀명합시다.
일광은 먹구름 뒤에서 항상 빛을 내듯이 중생의 청정한 혜일이 어둠을 걷어내고 온기가 봄기운처럼 가득 피어나도록 예경의 마음모아 부처님의 정법을 실천합시다.

그대들은 지금 깨어 있는가?

법화종 종정 성파스님

시방세계와 온 몸이 눈이니
자기의 광명이 대천세계를 비추네
공겁 이전에는 한 물건도 없었는데
무엇이 아득히 떠도는 하늘 붕새인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인가? 시방세계 참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함입니다. 미암에 빠져 탐욕심으로 살고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참된 성품을 드러내는 부처의 성품에 들게 하기 위함이니,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러워도 불법의 광명이 온전함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라일락 향기 온 천지 사방에 가득한 부처님오신날, 그대들은 지금 깨어 있는가? 참된 깨달음의 소식을 위해 귀를 열고 있는가? 낙조에 흔들리는 바람이 서방정토로 기우네. 대중은 아기 부처님 걸음에 꽃 피고 아홉 마리 용의 물이 온 천지를 청량하게 씻어주는 소식 듣고 가슴 깊이 담아두었던 참된 성품을 모두 밝힙시다.

총기 45년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불교총지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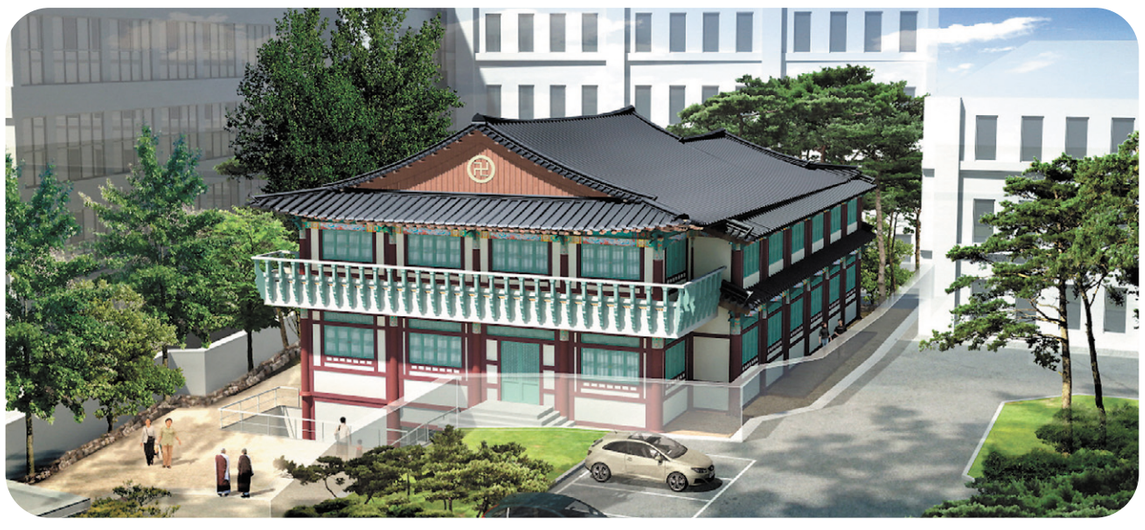
종령 효 강 대종사
통리원장 인 선

중앙종의회 의장	수 현	중앙교육원장	화 령
사감원장	법상인	동해중학교 이사장	인 선
총무부장	우 인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 경
재무부장	원 당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안 성
교정부장	법 일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정인화
사회부장	지 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지 정

중앙종의회 의원	법장원	총지종보 및 종보통신원
총지종 유지재단	밀교 연구소	각 교구 신정회 일동
전당건설 위원회	(재) 사회복지재단	만다라요양원·바라밀 지역아동센터·초록어린이집
통리원 임직원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일원어린이집·포레스타7단지 어린이집

불교총지종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역삼동)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제2 정화운동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견인하겠습니다



이사장 법진

장로원장 혜 광 교무이사 한 북
총무이사 송 운 재무이사 정 덕

민족불교·정화불교
재단법인 선학원
☎ 02)734-9654~7
FAX 02)734-3410